

# 【韓国昔話】 トラのお兄さんと木こり

## 호랑이 형님과 나무꾼

### 場面 1 山中でトラと出くわした木こり

#### 장면 1 호랑이와 산에서 마주친 나무꾼

옛날 옛적에 흠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효성 깊은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.

어느 날 나무꾼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.

‘아이쿠! 이를 어쩌지?’ 나무꾼은 깜짝 놀랐지만 순간 기지를 발휘하였습니다.

“아이고 형님. 이렇게 만나다니. 어렸을 때 집을 나가 호랑이가 되어 버린 형님 아니세요.”

### 場面 2 機転を利かせ自分たちは兄弟だとトラを騙す木こり

#### 장면 2 기지를 발휘해 형제라며 호랑이를 속이는 나무꾼

“제가 기억이 안 나세요? 어머니가 얼마나 형님을 기다리고 있는데요.”

“흥.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?” 호랑이는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.

하지만 나무꾼이 계속 울면서 어머니 이야기를 하자 웬지 어렸을 적 자신이 인간이었던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

‘어렸을 적 기억이 잘 안 나는데. 혹시 인간이었을 때 기억을 잃어버렸나?’

### 場面 3 お母さんを恋しがり悲しむトラ

#### 장면 3 어머니를 그리며 슬퍼하는 호랑이

그런 생각이 들자 계속해서 자신을 그리워 했을 어머니가 떠올라 슬퍼졌습니다.

“아이고. 어머니. 불효자를 용서하세요.” 호랑이는 나무꾼을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.

“나는 이미 호랑이가 되어 인간과 함께 살 수는 없다. 나 대신 어머니를 잘 모셔 다오.”

나무꾼의 말을 믿은 호랑이는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며 산으로 돌아가고 나무꾼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 올 수 있었습니다.

### 場面 4 家の前に置かれた山の動物を見て驚く木こりとお母さん

#### 장면 4 집앞에 놓인 산짐승을 보고 놀라는 나무꾼과 어머니

그 뒤 누군가 집 앞에 멧돼지, 사슴 등 산짐승을 가져다 놓는 것이 아니겠어요.

“어머니 제가 전에 말한 호랑이가 가져다 놓은 것 같아요.”

“아니 호랑이가 사람의 도리를 다 하다니. 사람보다 더 사람다운 호랑이로구나.”

하고 어머니도 놀라셨습니다.

이후 나무꾼 가족은 고기 걱정 없이 지내게 되었어요.

## 場面 5 年を取ったお母さんが亡くなる

### 장면 5 연로하신 어머니가 돌아가심

몇 년의 세월이 흐르고 연세가 드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.

“어머니 흑흑. 이렇게 돌아가시다니요.”

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더 이상 호랑이가 집 앞에 고기를 가져다 놓는 일은 없었습니다.

나무꾼은 호랑이의 안부가 궁금했지만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는 일 없이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.

## 場面 6 山中で白い喪服を着たトラを発見

### 장면 6 산속에서 흰 상복을 입은 호랑이를 발견

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은 산속에서 흰 상복을 입고 있는 아기 호랑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.

“아니 호랑이가 왜 상복을 입고 있니?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?”

그러자 아기 호랑이가 대답했습니다. “저희 아버지는 원래는 사람이었대요.”

## 場面 7 何も口にせずお母さんを偲ぶトラ

### 장면 7 식음을 전폐하고 어머니를 그리워 하는 호랑이

“그런데 길을 잃고 산속으로 들어와 호랑이로 변해버려서 할머니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였다고 늘 아버지가 속상해 하셨어요.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너무 슬퍼서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하다 그만 돌아가셨어요.

저희도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사람처럼 흰 상복을 입은 거예요.”

## 場面 8 トラのお墓の前で泣く木こり

### 장면 8 호랑이 무덤 앞에서 우는 나무꾼

죽음을 모면하려고 한 나무꾼의 거짓말을 끝까지 믿은 호랑이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죽은 것이었습니다.

나무꾼은 아기 호랑이를 따라 호랑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.

“형님. 호랑이 형님. 사람보다 더 지극했던 형님의 효성을 잊지 않겠습니다.”

나무꾼은 효심 깊은 호랑이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였습니다.